

## 제6장

### 첫 번째 환상: 일곱 교회(2-3장)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아홉 가지의 모양을 목격한 후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이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단지 일곱 교회만을 선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선정된 일곱 교회의 상황과 신앙의 모습이 다른 모든 교회들의 상황과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세상의 핍박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켜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와 유사한 교회들이 있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유사한 교회들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들로 그 일곱 교회들 중 칭찬받은 교회의 장점은 본받고, 책망받은 교회의 문제점은 피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일곱 교회를 선정한 것이었다.

둘째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숫자 일곱은 '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정된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이는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곧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 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이 서신의 형식을 갖춰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서신의 형식은 수신자, 예수님의 모양, 칭찬, 책망, 권면, 그리고 약속 등 여섯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수 님의 모양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빛난 청동같은 하나님의 아들	일곱 별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참된 증인 이시며 창조 근본 이신 이
칭찬	교리적 열심	영적 부요	믿음 지킴	사랑, 봉사	소수의 신실한 성도	말씀 균계 지킴	
책망	첫 사랑 없음		거짓 교훈 따름	거짓 이세벨 교훈	영적 죽은 자		가난한, 미지근한 신앙
권면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이세벨 배척하라	깨어라	계속하라	열심내라 회개하라
약속	생명나무 열매 주심	둘째 사망 없음	흰 돌과 만나 주심	만국통치 권세 주심	흰 옷, 생명책 기록	성전 기둥에 이름 새김	하늘 보좌에 앉음

여기서 여섯 개의 요소들 중 한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아홉 가지 모양 중 일곱 각 교회에 한 모양 씩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각 모양으로 각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일곱 각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책을 제공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 각 교회는 그 당시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장점들과 버려야 단점들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 1. 에베소 교회(2:1-7)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바른 신학은 있었으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에는 바른 신학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단들의 가르침을 단번에 분별할 수 교회였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과 니콜라 당은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한 문제가 있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바른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른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른 신학을 가진 자들은 다른 이들의 그릇된 교리와 삶을 비판하며 멀리하기가 쉽다. 즉 바른 신학을 가졌다고 자만할수록 이웃 사랑이 결여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바른 교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를 흔히 ‘죽은 정통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정통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신다(5). 이 경고의 말씀은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뒤바꾸고 재구성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의미한다.

## 2. 서머나 교회(2:8-11)

서머나 교회는 심한 환난을 받은 교회였다. 이 교회는 크게 비방, 옥에 갇힘, 굶주림, 그리고 순교 등의 환난을 받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는 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 황제 숭배 문제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개인의 종교를 인정했지만, 일 년에 한 번 씩 신전에서 ‘황제는 주님이다’라는 공언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공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갑은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총독의 말에 “지난 86년 간 주님은 나를 한번도 배반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느냐”며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가 주님인 것을 시인하라’는 강요에 대한 거절로 로마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도 갇히는 수난을 당하였다. 사실 교회가 예수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한다면 로마의 핍박을 받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인해 혹독한 제자도의 대가를 치루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서머나 교회처럼 혹독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3. 버가모 교회

초대교회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총 본부가 있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신전들과 관련하여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었던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과 니콜라 당의 교훈이 있었다. 구약 시대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든 자였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상들과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또한 니콜라 당의 교훈도 있었다. 니콜라 당도 발람의 교훈과 같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고 간음케 하는 당이었다. 그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제우스 신전이나 로마 황제 신전에게 제사하고 그 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후에 무역을 거래하거나 매매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이교도 의식에 불참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격리와 직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교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니콜라 당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눅 16:13)고 경고하셨다. 요한도 ‘새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일 2:15)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교회들은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속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경고하시기 위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즉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시기 위해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감추었던 만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양식’을 의미하며, ‘흰 돌’은 신전 앞에 차려진 잔치상보다 훨씬 풍성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의미한다.

#### 4. 두아디라 교회(2:18-29)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사랑은 풍성했지만(19), 건전한 교리가 없는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자칭 선지자로 칭하였던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세벨도 니골라 당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죄를 짓게 하는 거짓 선지자이며 교사였다(20).

그러나 이세벨에게는 니골라 당과는 다른 한 차이점이 있었다. 과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로 칭한 여인이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로 칭하면서 자신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 전한다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직통계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청동과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다.

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과 새벽 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새벽 별이시다(22:16). 이런 점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 별’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 5. 사데 교회(3:1-6)

사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이다. 이 교회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1)라고 책망하실 정도의 교회였다. 사데 교회에는 겉으로 보기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살아 있는 교회’ 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는 참된 생명이 없었다. 즉 사데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등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 세상에서 구원되어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흥미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성장시켰었던 것이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될 수 없다.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데 교회는 대부분 중생하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 ‘일곱 영(성령)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에 참된 생명력을 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사데 교회를 향해 회개할 것은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 같이 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다. 그러나 사실 사데 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4).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6. 빌라델비아 교회(3: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생활로 인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 같이(2:9)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9).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며 칭찬하신다. 교회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의 억압이나 핍박에 대해 참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사단의 핍박과 미혹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였던 교회였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으며, 그 기둥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12). 즉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 7. 라오디게아 교회(3:14-22)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물질주의 빠져 자만심과 자기 만족, 자기 신뢰, 그리고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의 산지로 유명했고, 안약을 생산하여 많은 도시로 수출하며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도시였다.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되어 좋은 집, 좋은 옷, 풍성한 음식, 많은 돈, 좋은 의료 시설 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부유함과 안정된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신앙이 미지근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별거벗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계신다(17).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문제를 보여 주는 한 특징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20) 예수님의 모습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교회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지내는 교회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처방책을 알려 주신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이다(18). 이것은 ‘순수한 믿음’과 ‘성결한 삶’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 8. 일곱 교회에 보내지는 공통적 메시지와 정리

일곱 교회에 보내지는 공통적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김’은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릇된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릇된 삶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시록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의 삶을 가르켜 ‘사단과의 영적 전투’라고 말한다.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사단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즉 세상(정부, 유대인, 불신자 등)을 통한 핍박, 세상의 철학과 이단들의 거짓 교훈의 미혹,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풍성함을 통한 유혹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이러한 공격으로 일곱 교회는 사단의 핍박에 의해 믿음에서 넘어지며,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의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게 되었다. 즉 일곱 교회의 대부분은 사단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거의 잃어 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일곱 교회와 같이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단의 공격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사단의 핵심 무기는 핍박과 미혹과 유혹이다. 이때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핍박과 미혹과 유혹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가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도전하는 것이다.